감출수 없는 전쟁도발자의 정체

세계전쟁사에 뚜렷한 페지를 아로새긴 1950년대 조선전쟁,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불리워진 이 기이한 전쟁의 도발자는 과연 누구인가.

여기에 1957년 7월 일본의 론평가 후지시마 우다이가 평한 글이 있다.

《조선에서의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흔히 조선전쟁발발로 불리우는 1950년 6월 25일에 돌발적으로 시작된것이 아니고 이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부터 시작되였다.》

그렇다.

1945년 9월 《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한 미국은 북침전쟁준비를 계획적으로 추진하였다.

미국은 북침전쟁을 위해 남조선에서 군대를 조직하고 급속히 증강시키였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미국경제협력국 조선분국 국장 죤슨은 미의회에서 《미국식무기로 무장하고 미국장교들에 의하여 훈련된 10만여명의 남조선군대는 모든 준비를 끝마치였으며 언제든지 전쟁을 개시할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떠벌이였다.

미국은 북침전쟁을 위한 군사적준비를 갖추는 한편 전쟁계획을 작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였다.

1949년초부터 《북벌》을 당면과제로 내세우고 맥아더사령부 《G-2》소속 일본군장성들로 무어진 《KATO》기관과 《G-3》의 《력사반》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와 군부우두머리들을 포함시켜 전쟁도발계획작성에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여기에서 조선과 만주, 씨비리를 점령할것을 예견한 《ABC계획》이 연구작성되였다.

일본잡지 《진부쯔 오라이》(1964년 9월호)가 밝힌데 의하면 《A》계획은 38°선에 미군과 남조선군을 집결시켜 2개의 작전지대를 만들고 전선서부는 평양으로, 전선동부는 양덕, 원산으로 진격하며 평양북부지역과 원산북부지역에서 해공군의 상륙작전을 진행하여 전조선을 타고앉는것이였다.

이 계획안은 1950년 1월 미합동참모본부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였으며 전쟁을 일으킨 즉시 미군투입, 미국무성의 외교적모략과 첩보공작계획 등이 보충되여 조선전쟁도발계획 《AL-3》으로 최종완성되였고 1950년 4월 미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토의비준되였다.

1964년 4월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는 1950년초 미국의 세계제패전략을 반영한 극비문건 《NSC-68》계획에는 조선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미국과 추종국가군대까지 투입한다는것이 반영되여있었다고 까밝혔다.

북침전쟁계획을 작성한 미국은 《국방군》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키게 하고 미군을 개입시키는 《2계단전쟁론》에 따라 《국방군》 총력량의 70%이상이 완전한 공격태세로 넘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도서 《아메리카현대사》는 《전쟁개시에 있어서 조선전쟁처럼 완전히 준비되고있은적은 우리들의 력사에서 처음》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조선전쟁을 위한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 리승만매국도당을 부추겨 1947년부터 전쟁도발직전까지 38°선일대에서 무려 5 150차례의 무장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38°선에서의 《작은 전쟁》을 직접 조직하고 지휘한 미국은 조선전쟁의 불의성을 달성하고 전쟁도발의 책임을 공화국에 넘겨씌우기 위해 모략소동에 광분하였다.

1950년 6월 17일 미국대통령특사로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 최고고문 덜레스는 군사분계선에 직접 나타나 북침전쟁준비상태를 검열하고 트루맨이 최종적으로 비준한 전쟁비밀지령을 하달하였다. 당시 덜레스는 《금번에 트루맨의 특사로 남조선에 오게 된것은 극력 추진시켜온 〈북진〉준비정형을 검토하고 만일 부족되는 점이 없다면 지체없이 〈북진〉을 개시하는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기하기 위해서이다. 내가 본바에 의하면 모든것이 만족스럽다. 이제는 우리의 수확기가 되였구나 하는 생각에 나는 지금 매우 흥분되여있다. 준비가 된 이상에는 하루라도 빠를수록 좋다. 북조선에서 먼저 침입하였다는 역선전과 동시에 북조선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라.》고 떠벌이였다.

그러면서 만약 2주일만 견지한다면 미국은 북조선이 남조선을 공격하였다고 제소하여 유엔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륙해공군을 동원하지 않을수 없게끔 모든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할것이라고 뇌까렸다.

이에 따라 1950년 6월 25일, 미국의 사촉을 받은 리승만매국도당은 공화국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침공을 감행하였다.

당시 8보병사단장과 해군참모총장은 《나는 1선사단장으로서 비상사태에 있었다. 외출도 금지되였고 25일 새벽 그냥 전투에 들어갔다.》, 《전쟁은 사실 남으로부터의 도발로써 시작되였다.》고 고백하였고 미극동군사령부 참모였던자도 《조선전쟁은 일본에 있는 미군총사령부의 직접적명령에 의하여 〈국방군〉이 개시하였다.》고 실토하였다.

그때로부터 7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오늘 또다시 이런 엄연한 력사적사실을 외곡하고 이 땅우에 핵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기 위해 미쳐 날뛰는자들이 있다.

바로 미국과 보수집권세력이다. 얼마전에도 윤석열은 《6.25전쟁은 공산세력의 침략》이니 뭐니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아 온 겨레의 격분을 자아내였다. 이것은 력사의 진실을 가리우고 동족사이에 대결을 고취하며 나아가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해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력사의 진실은 감출수도 가리울수도 없는 법이다.

미국과 군부호전광들이 조선전쟁을 도발한 저들의 과거죄악을 가리우고 력사의 진실을 오도하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는것으로 얻을것이란 종국적멸망뿐이다.

본사기자 리연선

1950년 6월 18일 38°선에 기여나와 전쟁모의를 하는 미국의 《전쟁상인》 덜레스

미국과 리승만도당은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질렀다.

자멸을 재촉하는 망솔한 객기

남조선에서 군부호전광들이 대규모공중종합훈련인 《소링 이글(높이 나는 독수리)》이라는것을 벌리였다.

윤석열패당은 2018년부터 비공개로 진행되여오던 이 공중불장난을 이번에는 최대규모로 벌리면서 《북에 대한 경고》라고 로골적으로 떠들었다.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공공연한 도전이고 전쟁위험을 증대시키는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이 아닐수 없다.

호전세력들이 동족을 겨냥하여 벌리는 화약내나는 전쟁연습소동들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도 《2022년 화랑훈련》, 남조선미국련합공중무력시위비행, 남조선미국련합지상대지상미싸일발사훈련, 남조선미국참수특수작전련합훈련 등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각종 북침전쟁불장난들을 끊임없이 벌려오고있다.

이번에 벌린 대규모공중종합훈련은 이러한 북침전쟁책동의 연장이며 동족과 끝까지 대결하려는 윤석열패당의 흉심을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 군사적망동이다.

구름이 잦으면 비가 오기마련인것처럼 윤석열패당이 그칠새없이 벌리는 북침전쟁불장난이 언제 어떻게 실전으로 넘어갈지 누구도 알수 없다.

지금 윤석열패당이 그 무슨 《북의 위협》과 《도발》에 대해 떠들며 저들의 전쟁대결책동을 합리화하고있지만 그것은 건전한 리성, 초보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는 황당한 궤변에 불과하다.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안녕을 위한 공화국의 자위적인 국방력발전권리행사가 어떻게 남조선에 《위협》으로, 《도발》로 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더우기 저들은 로골적으로 북의 동족을 《주적》으로 삼고 각종 전쟁불장난을 벌리고 무력증강에 광분하는 등 제 할짓은 다하면서 존엄과 안전을 위한 상대방의 자주적권리행사에 대해서는 《위협》, 《도발》로 걸고들며 속박의 족쇄를 채우려는것이야말로 후안무치하고 날강도적인 이중적태도가 아닐수 없다. 현실은 조선반도의 전쟁위협은 북이 아니라 남조선에서 오고있으며 평화의 파괴자, 도발자는 다름아닌 윤석열패당과 같은 대결미치광이들과 그들을 동족대결과 북침전쟁에로 부추기는 미국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하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미국의 식민지노복, 전쟁대포밥에 불과한자들이 세계적인 막강한 국방력을 가진 초강대국을 향해 도발의 불을 걸어오는것이야말로 제 죽을줄도 모르고 설치는 어리석은 망동이다.

공화국과의 군사적대결을 기도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끔찍한 말로를 피할수 없다.

호전광들은 상대가 누구이고 제 처지가 어떤가를 이제라도 똑바로 자각하고 망솔한 객기를 걷어치워야 한다.

한광일

민생을 외면한 추악한 정쟁

《여야는 정치론리가 아닌 민생론리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민생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이 안정되지 않으면 불안심리가 실물경제에 다시 투영되는 악순환이 반복될것이다.》

이것은 최근 남조선에서 여야당의 원내대표들이 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민생을 위한다는 말과는 전혀 딴판이다.

후반기임기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있는 《국회》상황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여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후반기 원구성을 둘러싸고 정쟁으로 날을 보내고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저들이 차지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몰아대고있다.

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배정은 이미 여야합의에 따른것이라고 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몽니(심술궂고 사납게 굴면서 떼를 쓰는 성질)로 국회공전사태가 기약없이 길어지고있다.》고 《국회》마비책임을 야당에 넘겨씌우고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과 관련한 합의준수만 고집하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서 《여당이 대화없이 밀어붙이고 압박하고 양보없이 주먹만 휘두르고있다.》고 완강히 맞서고있다.

여당이 자기의 주장만 고집하는 경우 《국회》의장 단독선출도 검토하겠다는것이 야당의 강경자세이다.

이를 두고 언론들은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자리를 놓고 양보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 국회가 본회의일정조차 잡지 못하고있다.》고 전하면서 여야간 공방은 한층더 치렬해질것이라고 보도하고있다.

민생은 뒤전에 밀어놓고 권력쟁탈을 위해 피눈이 된 여야정치시정배들의 개싸움질이라고 해야 마땅할것이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최고의 《고물가, 고환률, 고금리, 고실업》의 《4중고》로 민생이 갈수록 어려워지고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7%, 실업률은 3.1%이고 년간 경제고통지수는 2008년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있다고 한다.

이것이 현실임에도 권력을 놓고 벌리는 여야의 싸움은 더욱 치렬해지고 그로 하여 민생은 말그대로 오뉴월 개털 모자신세이다.

여야당의 시정잡배들은 서로의 개싸움질도 성차지 않아 자체내부에서도 서로 물고뜯으며 으르렁대고있다.

올해에 진행된 선거들에서 련패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기 당대표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문제를 놓고 극심한 계파갈등에 시달리고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당혁신》놀음을 두고 당대표 리준석과 친윤석열계가 한바탕 설전을 치른데 이어 《국민의 당》과의 합당에 따른 지도부구성문제를 두고 리준석과 전 《국민의 당》 대표 안철수사이에 공개적인 갈등이 표면화되는 등 계파간 갈등과 알륵이 갈수록 심화되고있다.

얼마전에는 당내현안문제를 놓고 충돌한 《국민의힘》 당대표와 녀성최고위원의 흉한 꼴이 언론에 공개되여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프리게 하였다.

《갈수록 경제와 민생이 여러가지 악재가 겹친 복합적위기에 처해있는데 여당이 당내권력투쟁에만 몰두하고있다.》는것이 민심의 목소리이다.

여당내부에서조차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국민이 등돌리게 될것》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있다.

권력쟁탈과 민생외면, 이것이 썩을대로 썩은 정치시정배들의 진면모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민심의 더 큰 비난을 초래한 집들이놀음

윤석열이 말썽많았던 《대통령》사무실이전을 강행하여 국방부청사에 짐을 풀어놓은지도 한달이 넘어 얼마전에는 사무실이전을 기념한다는 그 무슨 《주민초대행사》라는것을 벌렸다고 한다.

윤석열이 직접 나서서 연설도 하고 참가자들에게 선물도 주는 등 잡다한 놀음들을 펼치였다.

어떻게 하나 민심을 사보려는 역스러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에서 각계층이 파국적인 경제위기와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혈세를 들여 《대통령》사무실이전놀음을 벌린것도 모자라 또다시 엄청난 돈을 뿌려가며 집들이놀음까지 벌려놓았으니 얼마나 후안무치한 행태인가.

다 아는바와 같이 지금 민심은 윤석열이 집권이후 벌리는 반인민적악정에 침을 뱉으며 반《정부》투쟁에 떨쳐나서고있다.

민주로총산하 화물련대가 윤석열패당의 반로동정책에 항거하여 남조선의 전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벌린것은 대표적실례이다.

그러나 윤석열은 로동권, 생존권을 요구하는 화물련대의 투쟁에 대해 《로조의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힘자랑》, 《새 정부길들이기》라고 악의에 차 비난하면서 강경진압을 명령하였다.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총파업이 시작된 후 사흘동안에만도 수십명의 파업참가자들이 철창속으로 끌려갔다.

이처럼 민심과 민생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권력의 유지와 치부, 영달에 환장이 되여있는 윤석열이 《대통령실 이전기념 주민초대행사》라는 간판을 달고 엄청난 돈을 뿌려가며 흥청거린것은 민심을 등진 시정잡배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다시한번 여실히 드러낸것으로 된다.

윤석열은 이번 집들이놀음을 통해 민심을 얻으려 하다가 오히려 민심의 더 큰 환멸과 저주만을 불러일으켰다. 남조선에서 각계층이 윤석열의 이번 집들이놀음과 관련하여 《국민과의 소통이 아니라 쇼통(보여주기식소통)에 불과하다. 윤석열정부가 악화된 민생경제는 돌보지 않고 인기올리기에만 치중하고있다.》고 비난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고전작품이기는 하지만 민심, 민생은 안중에 없이 흥청거리며 거드럭거리는 윤석열패당의 행태에 꼭 들어맞는 시가 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초불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래소리 높은 곳에 원망
소리 높더라

민심의 원망소리가 점차 커지면 분노의 함성으로 이어진다는것을 윤석열과 그 패당은 명심해야 한다.

강현철

깔아주련는 매국노들
천년숙적에게 재침의 발판을

최근 윤석열패당이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떠들고있다.

남조선에서 외교부 장관이란자가 어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의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가능한 빨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겠다고 떠벌인데 이어 국방부 장관이라는자 역시 일본과의 안보협력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운운하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되살리려는 속내를 드러낸것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윤석열패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고 피눈이 되여 날뛰는 섬나라족속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천하역적행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바와 같이 미국의 배후조종밑에 박근혜역적패당이 지난 2016년 11월 일본과 강행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북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적결탁을 강화하고 미국주도의 3각군사동맹구축을 본격적으로 다그치며 사무라이후예들에게 대륙침략의 징검돌을 놓아주기 위한 극히 위험하고 범죄적인 매국협정이다.

윤석열패당이 박근혜역도년의 추악한 전철을 그대로 밟으면서 친일매국협정 정상화놀음을 벌리고있는것은 외세에 빌붙지 않고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윤석열패당의 체질화된 사대근성과 가련한 식민지주구의 처지를 더욱 여실히 드러낸것으로 된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내외의 규탄배격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망령이 도사리고있는 야스구니진쟈에 집단적으로 몰려다니고있는가 하면 《방위백서》와 력사교과서들에 우리의 신성한 강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일본고유의 령토》라고 뻐젓이 명기하면서 령토강탈과 력사외곡책동을 더욱 로골화하고있다.

또한 일본이 전쟁을 영원히 포기하고 륙해공군 및 기타 전쟁능력을 유지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을 승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제되여있는 현행헌법을 뜯어고치고 해외팽창의 길로 나가려 하고있다.

윤석열패당이 이처럼 군국주의부활과 재침야망에 미쳐있는 불구대천의 천년숙적과 그 무슨 《공조》를 운운하면서 매국협정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정상화하려고 하는것은 미국은 물론 섬나라족속들까지 등에 업고 동족대결망상, 북침야욕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을 등지고 사대와 매국을 일삼는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이 력사의 철리이다.

이미 남조선민심은 친미, 친일역적질에 환장한 박근혜패당을 을사오적을 릉가하는 매국노무리로 락인하고 초불항쟁으로 수치스러운 파멸을 선고한바 있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짓밟고 극악무도한 섬나라것들에게 재침의 길을 열어주려고 발광하는 윤석열패당은 박근혜역적패당처럼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신기복

위기만 증대시키는 경제정책 비판

얼마전 남조선에서 언론 《민플러스》가 윤석열의 경제정책에 대해 신랄히 비판하였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윤석열정부는 5개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법인세는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도 대폭 깎아준다.

상속세납부는 유예하고 투자나 임금인상 등에 쓰지 않는 기업리윤에 대한 추가세금은 아예 없애버린다.

몽땅 부자감세내용이다. 재벌과 부자들이 아주 살판이 났다.

이번에 발표한 윤석열정부의 경제정책은 재벌이 요구한 정책그대로이다.

로동자, 서민의 목소리를 좀 이렇게 들어줘봐라는 말이 안나올수가 없다.

윤석열은 재벌,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고서 정부재정을 〈건전화〉하겠다고 한다. 결국 서민의 세금을 올리겠다는 소리다.

정부는 이런 정책을 〈법인세 감세〉는 〈민간주동성장〉이라고, 〈부동산보유세 감세〉는 〈주거안정〉이라고, 〈주식양도세 유예〉는 〈금융혁신〉이라고 우긴다.

윤석열의 특징이 문제가 되는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다는데 있다. 그렇게 내뱉으면 없던 정당성도 생긴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거리낌없는 윤석열의 행각에는 대통령을 〈처음〉해보는거라서, 자신의 무능과 무식을 잘 몰라서 그랬을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황당한 경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인기가 없는 정책이라도 반드시 밀고나가겠다.〉고 호언하는것을 보면 꼭 그런것만은 아니다. 윤석열은 잘 알면서도 빈부격차해소와 민생보다는 재벌과 부자와 한편이 되기로 굳게 맹세한것으로 보인다.》

언론은 윤석열의 경제정책에 대해 이렇게 분석하면서 《물가폭등과 민생불안의 심각한 위기시대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난 국민이 불행할따름이다. 그러나 민심과 민생에 기초하지 않은 정치는 늘 그끝이 좋지 않기마련》이라고 평하였다.

무지와 무능으로 정책이라는것을 내놓고 그것이 각계층의 항의와 규탄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막지하게 내밀겠다고 하는 윤석열이다.

그런 식으로라면 이제 《검찰공화국》의 출현도 《공정과 혁신》의 산물이라고 미화하고 파쑈독재의 칼부림도 《법과 원칙》을 위해서라고 변명할것이 분명하다.

예로부터 나쁜 사람은 주위를 못쓰게 만들지만 나쁜 정치는 모두를 못쓰게 만든다고 했다.

민심도 민생도 안중에 없이 남조선사회의 1%도 되나마나한 특권계층을 위한 반인민적악정을 일삼는 윤석열에 의해 민생이 어떤 처지에 처하고 남조선이 어떤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리라는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본사기자 김정혁

만화 《불순한 모의판》